

대한 민국

평화 기행

권기봉·김진환·한모니까 지음
국립통일교육원 기획

창비Edu
ChangbiEdu

들어가는 글 —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평화기행 9

1 인천·경기·강원 경계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다

- 인식 지평 너머의 강화도 — 인천 15
- 상처의 이면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제물포 — 인천 27
- 남북을 잇는 물길과 나루 — 경기 김포·파주·연천 40
- 고향을 그리며 남북 교류와 협력의 길 찾기 — 경기 파주 48
- 화해와 공존의 통일미래 상상하기 — 경기 파주·연천 58
- DMZ의 사라진 마을, 사라진 역사 — 강원 철원 68
- 안보 시설의 예술적 전환을 상상하다 — 강원 양구 76
- 전쟁과 냉전의 기억을 품은 북한강에서 꿈꾸는 평화 — 강원 화천 85
- 동해북부선을 따라 금강산 가는 길 — 강원 강릉·속초·고성 99

2 서울 길에서 만난 평화, 길에서 만난 통일

- 한양도성을 걸으며 만나는 '남북 분단과 나' — 서울 종로 113
- '일제의 캔버스'에서 '시대의 인큐베이터'로 — 서울 용산 125
- 정동과 서울광장, 열패감을 넘어 희망으로 — 서울 중구 136
- 효창공원 답사의 숨은 가치 — 서울 용산 147
- 북한산에서 함께 나누는 평화·통일 이야기 — 서울 강북 159

3 충청·호남 쌀을 함께 나누는 게 평화다

- 그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다 — 충북 진천·청주 175
-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싸웠던 시절의 기억들을 찾아 — 충남 천안 188
- 저마다의 방법으로 '사람을 향한' 사람들 — 충남 홍성·예산 205
- 100년이 더 지나도 원심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 전북 정읍 215
- 눈물의 쌀, 희망의 쌀 — 전북 군산·김제 227
- 자유, 민주, 통일을 향한 열망이 공존하는 도시 — 전남 목포 238
- 비극의 터에서 되새기는 평화의 가치 — 전남 순천·여수 252

4 부산·대구·영남 강 따라 산 따라 평화의 관문으로

- 한반도의 또 다른 최전선 — 부산 267
-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서 — 부산 280
- 이픔의 땅에서 피어나는 포용의 힘 — 경남 통영·거제 293
- 나와 우리, 그 관계의 자각 — 경남 사천·진주·의령 305
- 보수적인 듯하지만 참여와 혁신을 꿈꾼 도시 — 대구 318
- 내어주지 않으려 한 그들 덕분에 되찾을 수 있었다 — 경북 안동 330
- 국토의 경계에서 발견한 평화의 가치 — 경북 울릉도·독도 345

5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불어라 평화바람

- 제주도가 보여준 역사적 화해의 길 — 제주 북부 359
-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면 — 제주 남부 372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평화기행

“좀 더 다양하고 가까운 현장체험학습지는 없나요?” 평화·통일교육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답입니다.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이해하는 ‘현장체험학습’도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도 교실과 현장체험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로 현장체험학습을 갈지 생각해 보면 비무장지대(DMZ) 일원 외엔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는 DMZ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DMZ 일원이 평화와 통일을 생각해 보기에 좋은 현장인 건 분명합니다. DMZ 일원은 남북 대결 역사와 평화·통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사·부모와 학생 등이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DMZ 일원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면서 갈 수 있다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그렇더라도 인천·경기·강원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가

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현장체험학습이 그렇겠지만, 특히 멀리 DMZ 일원까지 갈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간, 비용, 안전 등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줄임) 사태 탓에 먼 곳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가 이전보다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요구와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생각하다 떠오른 게 특정 '장소'가 오직 한 가지 '장소성'만 갖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소성은 장소가 지닌 개인적·사회적·역사적 의미를 말합니다. 누구와 가는가, 어떤 이야기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이전에 갔던 장소가 달리 보이고, 그곳에서 다른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정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그곳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DMZ 일원이 아닌 장소여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의미를 찾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유적이거나 독립운동 현장에 가서, 그들이 꿈꾸던 미래에 오늘 같은 분단과 남북 대결이 있었을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곳이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처럼 한국전쟁 전사자가 묻힌 곳에서, 대결과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남북 대화와 화해·협력을 생각한다면, 그곳도 괜찮은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가 됩니다.

이 책에는 DMZ 일원을 포함해 서울, 충청·호남, 부산·대구·영남,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 30곳이 담겨 있습니다. 추천 장소 중에는 잘 알려진 곳도 있고, 그동안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로 잘 떠올리지 않았던 곳도 있습니다. DMZ 일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추천했으니,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니다. 아무쪼록 시간도 덜 들고, 비용도 덜 들고, 안전하기까지 한 꽤 괜찮은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저희 세 사람이 각 장소를 다녀와 쓴 글은 여러분이 길을 나설 때 챙겨갈 만한 한 가지 이야깃거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장소가 지닌 의미는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소개한 장소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내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리라 믿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이 책을 만드는 데도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좀 더 다양하고 가까운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를 소개하고 싶다는 뜻에 적극 공감해 준 분들 덕분에 책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헌신적으로 안내해 주고 해설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지 연구자, 해설사, 기관 관계자들의 친절하고 설명과 의견이 없었다면 이 책의 글들은 상상해졌을 겁니다. 책을 기획하고 책이 나오기까지 모든 실무를 챙겨준 국립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와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빠듯한 일정인데도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출간을 맡아준 창비교육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지가 북녘으로까지 넓어지길 꿈꾸며 이제 여러분 손에 책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해 김진환

· 일러두기

외국 지명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했으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지역(예컨대 간도, 연변, 용정, 연해주 등)의 지명은 독자들에게 익숙한 한국식 독음으로 표기했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1
인천
경기
강원

경계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다



북한은 임남댐을 개방하여 단절된 북한강이

다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도록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생산 부족분은

남한이 여유 전력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평화의 댐은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또한 크답니다.





인천

인식 지평 너머의 강화도

고려와 조선 1000여 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요충지이자 임시수도로 이용된 '섬'이 있다. 그 지리적·지형적 특성에 빗대 '심도(沁都)'라 불리기도 했던 섬, 강화도다. 정묘호란 때 후금과의 강화(講和)를 위한 예비 회담지이기도 했던 연미정, 구한말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 체결지인 연무당 터를 비롯해 침략과 응전의 역사로 점철된 처절한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폭력의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쓴 흔적이 고루 남아 있는 점 역시 강화도가 지닌 면모 중 하나다. 동학운동가 김창수가 독립운동가 김구로 변모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대명헌, 구한말 최초의 성공회 성당으로 들어선 이래 한일 간 폭력적 갈등만이 아닌 배려의 기억도 품고 있는 성공회 강화성당, 버려진 산업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옛 조양방직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강화도의 지리적 위상을 보여주는 흔적들

먼저 찾아갈 곳은 강화도 북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월곶돈대다. 2008년에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출입이 가능해졌는데, 돈대 안에 있는 연미정에 서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황해로 빠지는 조강,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해협인 염하, 그리고 개성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예성강 하구 쪽이 바라다보인다. 지금 연미정 건물은 새로 지은 것이긴 하지만 크게 세 물길의 합수지에 위치한 정자이자 군사 방어용으로 지은 월곶돈대 안에 있어 고려는 물론 조선 왕조 내내 수도와 바다를 잇는 가장 중요한 물길들의 길목인 강화도의 지리적 위상을 짐작케 해준다.

연미정 일대는 조선 인조 5년(1627년)에 후금이 조선을 침탈한 정묘호란 당시에 두 나라가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예비 회담을 연 장소로 알려진 곳이다. 이렇듯 강화도는 한반도를 경영한 왕조들 시각에서는 최후의 보루였으며, 침략자들로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 혹은 최후의 정복지였다. 실제로 강화도 곳곳엔 말 그대로 국방 관련 유적이 즐비하다. 그중에서도 조선 시대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광성보, 신미순의총, 손돌목돈대, 용두돈대 등이 전형적이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 프랑스와 미국이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을 침략하면서 거쳐야 했던 곳도 강화도다. 1871년의 신미양요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지만, 그에 앞서 1866년에 벌어진 병인양요 때는 외규장각 사고(史庫)가 불타고 약탈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극심했다. 프랑스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방화를 하는 바람에 조선 왕조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5000여 권의 책이 불타 사라졌고, 국가나 왕실 차원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한 340책의 서적과 지도와 천체도 등 주요 왕실 자료가 약탈되었다. 당시



월곶돈대 내에 자리한 연미정 |

프랑스가 훔쳐 간 의궤들 중에는 국내외에 단 한 점밖에 없는 판본이 상당했고, 대체로 국왕이 친히 열람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들이어서 충격이 더욱 컸다.

당시 빼앗긴 외규장각 의궤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파리에 서 유학 중이던 박병선 박사가 197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서 훗날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드러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발견한 데 이어, 1975년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분관에서 병인양요 때 빼앗긴 외규장각 의궤를 찾아낸 것이다. 그 이후 이것의 반환 여부가 국가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정도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지대했다. 근대 초기에 이 땅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인 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한국은 고속철도를 건설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직은 자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철도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테제베와 독일의 이체, 일본의 신칸센이 물망에 올랐다. 결론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프랑스의 테제베가 한국형 고속철도의 모델로 낙점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전에 없이 오묘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여러 의궤 중 《수빈회경원원소도감의궤(綏嬪徽慶園園所都監儀軌)》(상) 1책을 가져와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한국 측의 호감을 사기 위한 행위였던 것 같은데, 끝내 계약을 따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놀라운 것은, 영구적이며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대여’ 방식으로 의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더없이 폭력적이었던 근대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이었기에 언론을 필두로 적잖은 이들이 열광했다는 점이다. 협상 과정과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전쟁이 문화재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동시에 그것이 남긴 잔상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게 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강화도가 ‘길목’에 있지 않았다면, 끝내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다면 꺾지 않았을지도 모를 사고 약탈…。 하지만 강화도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된 섬은 아니었다. 그 위상에 걸맞은 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선 강화산성에 올라보는 것이 좋다.

고려궁터 안에 남아 있는 외규장각 뒤쪽 언덕 오솔길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강화산성에 오를 수 있다. 산 능선 언저리까지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온다. 이때 왼쪽 길을 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시원하게 뚫린 강화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나온 월곶돈대와 연미정이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특히 넓게 펼쳐진 논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들은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아니다. 대부분 제방

요가 있었고, 결국 간척 사업을 게을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보면 강화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국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흔적들로 채워져 있는 섬이다.

너른 논들이 펼쳐지는 들판을 오른편에 두고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북문에 닿는다. 북문을 지나 다시 오르막을 오르면 얼마 가지 않아 강화향교 방면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서 서문이 지척이고 그 앞에 연무당 터가 있다. 1876년(고종 1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즉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지금은 당시의 건물은 없고 터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기념비만 남아 있다. 강화도의 지리적 위상과 그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애쓴 인물을 품어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강화도가 폭력의 역사만으로 이어져온 땅은 아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노력의 공간이었으며, 다양한 교류와 포용의 시작점 역시 강화도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흔적도 여럿 남아 있다.

강화읍내 남동쪽 골목 안에 자리한 대명헌은 이곳 출신 독립운동가 김주경의 원래 집터 일대에 강화도의 부농 황국현이 1928년에 새로 지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사랑채와 문간채, 별당, 곳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보수를 거쳐 지금은 본채와 문간채 정도만 남아 있다.

집을 둘러보면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든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



대명헌 |

청마루에 유리문이 달려 있는 등 영락없는 근대식 한옥이지만, 마룻바닥이 영국에서 유행하던 헤링본 구조로 짜여 있다. 심지어 유리창에는 에칭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대들보와 서까래는 백두산에서 벌목한 잣나무를 구해서 올렸다고 하고, 창틀과 마루도 하나 하나 짜 맞추었다고 한다. 당시 황국현의 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황국현은 그 부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닌 듯하다. 그의 첫째 사위인 김근호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중심이 되어 세운 배재학당의 이사장을 지내는 등, 황씨 집안은 청년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이 집의 내력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마당 한쪽에 안내판 형태로 만들어 세워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이채롭다. 1947년에 이곳을 찾은 백범 김구 일행과 지역 유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김구의 강화도 방문은 당시 《대중일보》 1면에 <인천축항의 노역죄인

김구, 지금은 건국도상의 거인 김구 주석)이라는 기사로 대서특필되었을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풀어보면, ‘인천항을 지을 때 동원되어 노역을 해야 했던 죄인 김구가 건국 과정인 지금은 아주 큰 인물이 되어 강화를 찾았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훗날 김구로 이름을 바꾸는 스물한 살 김창수는 1896년에 을미사변에 대한 보복 행동으로서 한 일본인을 황해도 치하포에서 죽였다. 이것이 이른바 ‘치하포 사건’이다. 이 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감리서에서 옥살이를 했다. 그때 그의 구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가 김주경이다. 그런데 구명 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자 김주경은 김창수에게 탈옥을 권유하는 시를 지어 보냈고, 김창수는 정말로 1898년에 탈옥을 감행한다. 김창수가 탈옥한 뒤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자신을 위해 애쓴 김주경의 활동 공간인 강화도다.

그러나 들은 재회하지 못했다. 김주경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미 거처를 옮긴 뒤였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김창수는 김주경의 동생인 김진경의 집에서 약 석 달간 머물며 독립운동가 유완무를 만나 이름을 김창수에서 김구로 바꾸고 중국행을 택한다. 그랬던 김구가 해방 후 귀국해서 가장 먼저 수소문한 사람 가운데 한 명도 김주경이다. 1947년에 김주경이 살던 곳을 찾았으나 지난번처럼 그를 만나지 못한 채 그의 집터 근방에서 사진을 찍었다. 현재 대명헌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다.

한반도 내에서 일본의 위력이 날로 거세져 가던 당시, 일본인을 죽인 조선인을 위해 구명에 나서는 행위는 자신의 안위마저 염려해야 하는 차원의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김주경을 비롯한 강화의 인물들이 김구 구명에 그렇게 전력했던 이유는 뚜렷했다. 구한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개항장으로 열린 인천 제물포를 비롯한 근처 강화도 일대의 객주

들은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로부터 상권을 보호하고자 1885년에 인천객주상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일본화폐 수취거부운동’을 펼치는 등 저항에 앞선 이들이기도 했다.

더욱이 강화도, 나아가 조선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겁박해 오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반감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개항된 이곳 사람들의 의기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들에게 을미사변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했던 김구의 용기는 자연스럽게 남달라 보였을 것이다. 강화도 출신의 의병 활동가와 독립운동가 수가 단위면적이나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보다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고려 시대에는 몽골에 맞선 최후의 저항지이자 임시수도,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멸망의 시발점과도 같았던 1876년 강화도조약의 현장이라는 이미지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강화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반대의 모습도 상존한다. 역사의 폭력적이며 일방적인 흐름에 낙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을 낳고 보듬어준, 마치 민족해방운동의 등지와 같은 역할을 한 곳 역시 강화도다.

계단 난간과 종에 담긴 메시지

대명헌에서 북쪽으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공회 강화성당도 한국인의 시야를 좀 더 넓게 확장해 준다. 대명헌과 고려궁터 사이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이 건물은 영국성공회가 1900년경 조선에 첫발을 디뎠을 무렵, 신자 2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40칸 규모의 한옥 형태로 지은 건물로, 한반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이다.

외관은 지어질 당시 조선인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한옥 구조를

택했고, 내부 세례대에는 ‘重生之泉(중생지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샘)’과 ‘修己洗心去惡作善(수기세심거악작선: 스스로 수양하고 마음을 닦으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이라는 한자를 새겨두었다. 이질적인 외래 종교가 새로운 지역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택한 배려와 조심스러움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더 눈길을 끄는 게 있으니, 바로 성당을 오르는 돌계단 양쪽의 난간과 1900년에 건립된 성당에 다소 걸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세월의 때가 타지 않은 듯이 보이는 동종이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 4월, 일본은 전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노동력과 물자를 통제하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반포했다.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고 일반 가정에서까지 금속을 공출하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이 세운 강화성당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계단의 철제 난간과 종이 이때 뜯겨 나갔다. 이 공간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2010년이다.

성공회 강화성당 |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자 강화성당을 완공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일본성공회와 신도들이 나섰다. “과거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을 참회하고, 한일 양국의 진정한 화해와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계단 난간과 종을 복원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이에 대한성공회는 “지난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고 평화를 향한 교회의 영원한 사명을 역사 속에서 실천한 일본성공회의 용기에 감사와 연대의 뜻을 표”하며 화답했다.

인기 여행지의 숨은 이면

근래에 카페 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옛 조양방직도 눈여겨볼 만하다. 조양방직은 원래 1933년에 지주 집안 출신 홍재묵·홍재용 형제가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방직 공장으로, 1958년 폐업할 때까지 강화도 직물 산업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한창때 강화도에는 조양방직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직물 공장이 60군데가 넘었고 노동자 수가 4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직물 산업의 중심이 대구로 옮겨 가면서 강화도의 방직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조양방직은 화재 사건 등을 겪으며 그보다 조금 앞선 1958년에 간판을 내렸다.

그곳에 새로운 숨이 불어넣어진 것은 2017년경이다. 산업 현장을 새로이 바라보려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전시 공간 겸 카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특히 방직 공장 시절의 직조기 같은 기계 설비나 작업대를 없애지 않고 탁자와 장식 요소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요즈음 유행하는 ‘뉴트로 감성’을 불러일으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조양방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여행지로 떠올랐으니 방문해 보라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봉건적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넘어 근대적 산업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로 변모해 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독특한 단면을 집대성한 역사책과도 같은 곳이 조양방식이기 때문이다.

수탈과 학정으로 점철된 이 땅의 근대에, 유독 강화도에서는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했다든지 하는 폭압적 수탈 사례가 전하지 않는다. 소작쟁의가 전국적으로 빈발했을 때에도 강화도에서는 한 차례도 일어난 바가 없다. 오히려 조양방식을 설립한 흥씨 집안은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의연금이나 동정금의 명목으로 사재를 털어 구휼 사업에 나섰기에, 소작농을 비롯한 서민들은 그들을 자신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닌 함께하는 이들로 인식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 산업 자본의 형성 과정에서 실로 보기 드문 사례다.

적잖은 사람들에게 강화도는 대 몽골 및 대 후금 항쟁의 현장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강화도조약 등 쇠락해 가는 조선의 모습이 응축된 섬 정도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해외와 수도를 잇는 주요한 길목으로서 강화도가 지닌 입지, 대명헌을 둘러싼 스토리와 성공회 강화성당 돌계단과 종에 녹아 있는 섬세한 배려와 화해의 제스처, 그리고 카페로 변한 조양방식 이면의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할 이야기들까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예상치 못했던 사실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한 강화도다. 다 안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 속살의 이야기까지는 다가가지 못했던 강화도를 찾아 우리들의 인식 지평을 조금 더 넓혀 보는 것은 어떨까.

• 권기봉



상처의 이면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제물포

인천 제물포는 가장 치열했던 시대, 그러나 잊힌 시대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제물포는 한반도가 세계와 교류하는 창구였다. 그 교류는 때로 평화적이었고 때로 폭력적이었다. 특히 제물포는 구한말 최초의 개항장들 가운데 한 곳으로서 ‘최초’ 타이틀을 여러 개 지닌 곳이다. 부두 노동자의 끼니로 시작됐다는 짜장면이야 이미 유명하고, 냉면을 뽑다 실수로 탄생했다는 쫄면도 제물포 출신이다. 맥주와 사이다도 마찬가지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초의 성냥 공장 역시 1886년에 제물포에 들어섰고,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기상 관측을 시작한 곳도 1904년에 자유공원 북쪽 응봉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인천관측소다. 그 외 지금은 전라남도 일대에 많은 천일염전과 야구, 등대, 해수탕, 근대식 호텔 그리고 상업 광고를 비롯하여 무역과 이민 등 다양한 제도도 근대 제물포에 본적을 둔 것들이 부지기수다. 그 중요성 때문에 제물포가 인천이라는 이름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물포가 원래부터 번성했던 포구는 아니다.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렇게 적었다.

서울의 항도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제물포는 전혀 항구로 불릴 수 없을 정도이다. 큰 선박과 전함이 놓여지는 ‘외항’이라는 것이 정박지와 다를 바 없고, 도시에 인접하여 한강 어귀의 격렬한 조수 속에 있는 ‘내항’이라는 것은 한 번에 작은 툄수의 배 대여섯 척만이 이용 가능할 정도다. … 남쪽과 서쪽 해안에서는 조수가 무려 7~11.6미터(!) 사이를 오르내린다.

— 이사벨라 버드 비숍,《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반도 철도의 시발점, 인천역

근대적 항구라기보다는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제물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1876년 들어서였다. 한 해 전 여름에 벌어진 ‘운요호(운양호) 사건’과 그 결과로 맺어진 강화도조약에서 일본은 부산 외에도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관철시켰다. 부산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교두보였기에, 원산은 동쪽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보루로서, 그리고 인천은 수도 한성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기에 목록에 올랐다. 그중 인천 제물포의 개항은 조선의 개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해서 1883년 1월, 인구 70여 명의 한적한 어촌 제물포의 문이 열렸다.

제물포에서 제일 먼저 가볼 곳은 인천역 광장이다. 인천역 1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한국철도 탄생역’이라는 글을 새긴,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알리는 기념물이 보인다.

한반도에서 철도가 처음 놓이기 시작한 때는 구한말이다. 1897년에 인

천 우각현에서 공사를 시작해 1899년에 제물포와 노량진 구간이, 1900년에는 노량진에서 지금의 이화여고 일대에 있던 서대문정거장 사이가 완공되었다. 처음엔 주한 미국 전권공사이자 기업인인 제임스 R. 모스가 철도 공사 사업권을 따냈으나, 그 회사가 경영난으로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비롯해 일본인이 이끌던 경인철도 합자 회사가 최종적으로 경인선을 완공했다.

왜 제물포가 시작점이 되었는가 하면, 그곳이 수도 한성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는 한강 마포나 지금의 한강진 일대까지도 큰 배가 들어왔으나, 한강 수중보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썰물 때면 한강물도 함께 빠지다 보니 대형 상선은 항행이나 접안을 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웠다. 따라서 가능하면 바다를 면한 곳에 무역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 최적지가 바로 제물포였고, 그곳을 시발점으로 한성과 직결하는 기차 노선을 놓은 것이다.

인천역 |



일본은 조선을 강제병합한 이후 병력과 물자 등을 정시에, 대량으로,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철도 노선을 깔기로 결정했다. 철도 부설은 비단 일제만이 보인 특징적인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벌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한번 깔아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사람의 이동과 물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인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이 잇달아 놓였다. 일제는 끝내 한성, 즉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엑스 자 형태로 관통하는 철도망을 완성했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의 인천역 일대다.

다만, 지금 인천역에는 ‘한국철도 탄생역’ 기념물 외에 역사를 알리는 시설이라곤 전혀 없다. 그나마 기념물에도 관련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다. 그저 1897년에 33.8킬로미터에 걸쳐 철도를 놓아,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데 걸어서 열두 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30분으로 줄었다는 내용 정도가 담담하게 새겨져 있을 뿐이다.

타율적으로 시작된 한반도 철도의 역사가 쓸쓸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그 역사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작은 안내판이라도 하나 세워 한반도 철도사의 특징, 제국주의와의 연관성, 그것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어땠을까. 나아가, 비록 철도의 시작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간 교류를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연도와 거리, 시간만으로 설명을 끝내기에는 철도, 특히 경인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